

- 주요 뉴스: 미국 상무장관 對中 무역협상 순조롭게 진행 세계은행은 세계 성장률 전망 하향
 - 미국 의회예산국, 8월~9월 사이에 부채한도 소진될 전망.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
 - ECB 렌 위원, 과도한 물가 하락 주의할 필요. 6월 유로존 투자자신뢰는 상승
 - 일본은행 총재, 최근 인플레이션은 목표와 괴리.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中 무역협상 관련 긍정적 결과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對中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강세 불구 방산주 약세 등으로 약보합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美中 무역협상 낙관론 확산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등으로 약보합 마감
독일은 부진한 영국 고용지표로 인한 영란은행 금리인하 기대 여파 등으로 4bp 하락
- ※ 뉴욕 1M NDF 증가 1363.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6.2원, 0.14% 상승). 한국 CDS 약보합

주요지수					주요지수				
		6/10일	6/9일	전일대비			6/10일	6/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38.8	6,005.9	+0.55%	국채금리 10y	미국	4.47%	4.47%	-0bp
	유럽	553.12	553.24	-0.02%		독일	2.52%	2.57%	-4bp
	중국	3,384.8	3,399.8	-0.44%		영국	4.54%	4.63%	-9bp
	일본	38,212	38,089	+0.32%	CDS 5y	한국	27bp	27bp	-0bp
	한국	2,871.9	2,855.8	+0.56%		중국	45bp	47bp	-2bp
환율	달러지수	99.05	98.94	+0.11%	위험지표	EMBI+	-	373	-
	유로화	1.1425	1.1422	+0.03%		VIX	16.95	17.16	-1.22%
	엔화	144.87	144.57	-0.21%		WTI유	64.98	65.29	-0.47%
	위안화	7.1878	7.1794	-0.12%	원자재	구리	490.0	492.5	-0.51%
	원화	1,364.3	1,356.4	-0.58%		금	3,323.7	3,326.2	-0.0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상무장관, 對中 무역협상 순조롭게 진행. 세계은행은 세계 성장을 전망 하향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이틀째 진행. 러트닉 상무장관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이 화요일(10일) 종료되기를 원하지만 수요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양측 대표들은 기술적인 세부 내용 합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 미국 측은 5월 제네바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對美 희토류 수출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對中 기술통제의 일부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술통제의 일부 완화를 선택한다면, 이는 이전까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시 중국의 승리로 보인다고 평가(Atlantic Council)
- 한편 세계은행(WB)은 금년과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2.3%, 2.4%로 제시하여 이전(모두 2.7%) 대비 하향 조정. 이번 결과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구체적으로 무역긴장과 이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등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국가별로는 이전과 비교한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에서 미국(2.3%→1.4%, 2.0%→1.6%), 유로존(1.0%→0.7%, 1.2%→0.8%), 일본(1.3%→0.8%, 0.9%→0.8%)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하향 조정되고, 중국(4.5%→4.5%, 4.0%→4.0%)은 보합
- 한편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10%p 높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반면 평균 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교역국들이 보복관세를 철회하면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p 오를 수 있다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의회예산국, 8월~9월 사이에 부채한도 소진될 전망.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

- 월간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특별 조치를 포함한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8월 중순부터 9월말 사이에 소진될 전망. 이는 3월에 공개되었던 예상보다 2주 정도 지연된 결과

■ 미국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베센트 재무장관 등이 주요 후보

- 블룸버그에 따르면,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 후보로 매파 성향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꾸준히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크호스로 부상. 이 외에 해시 국가경제위원장, 월러 연준 이사 등도 거론

■ ECB 렌 위원, 과도한 물가 하락 주의할 필요. 6월 유로존 투자자신뢰는 상승

-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렌 위원은 ECB가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만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목표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유로존 6월 Sentix 투자자신뢰는 0.2를 기록, 전월(-8.1) 대비 상승. 이번 결과는 트럼프 관세의 충격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최근 독일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영국의 2~4월 실업률은 4.6%를 기록했으며, 이는 4년 만에 최고치

■ 중국, 주택경기 활성화 유도를 위해 10.9조 위안 규모의 주택공적금 사용 확대

-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당국은 주택공적금(Housing Provident Fund) 활용을 확대. 주택공적금은 정부가 시민들의 주택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일반 상업은행 모기지 대출의 대체재. 현재 주택공적금 규모는 10.9조 위안이며, 이는 작년 모기지 대출 잔액(8.1조위안) 규모를 상회
- 한편,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를 겨냥하여 시작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12월로 연장. 이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

■ 일본은행 총재, 최근 인플레이션은 목표와 괴리.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우에다 총재는 의회 청문회에서 기초적 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연율 2%)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 아울러 물가와 경제가 강한 압력에 직면할 경우 경기부양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첨언. 한편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목표에 근접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ECB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 재정수입 확대 수단으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 - 블룸버그

(Trump's Tariffs Are Likely to Outlast Him)

- 트럼프 관세정책이 무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자유무역 질서의 지지 기반이 약화. 또한 시장과 의회 내 관세 저항도 감소.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었을 때 시장 충격이 크지 않았고, 공화당의 경우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상호관세를 정상적 정책 수단으로 인식
- 한편 의회에산국은 금년 초 부과된 신규 관세가 10년간 2.8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 이에 향후 재정 위기 시 소득세 인상 보다는 관세율 추가 인상이 정치적으로 선호되고, 트럼프 퇴임 이후에도 관세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

■ 미국의 관세정책, 향후 부정적 경제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New US tariffs are working as intended, right? Wrong)

- 4월 무역수지와 고용지표 등은 양호했으나, 이는 관세정책의 효과라기보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초래한 왜곡된 결과. 단기 경제지표들이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 같은 심리지표가 실제 경제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지표는 대부분 부정적 신호 발신
- 베이지북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은 의사결정을 늦추고,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우려. ISM 서비스업 조사에서도 주문이 감소하고, 기업은 관세부담을 전가하며 가격 인상 요구.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 EU 및 중국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무역 갈등 격화와 철강 관세 인상 등이 경제에 타격 초래할 소지

■ 주요국 중앙은행,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직접적 대응이 불필요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can brush aside rising long bond y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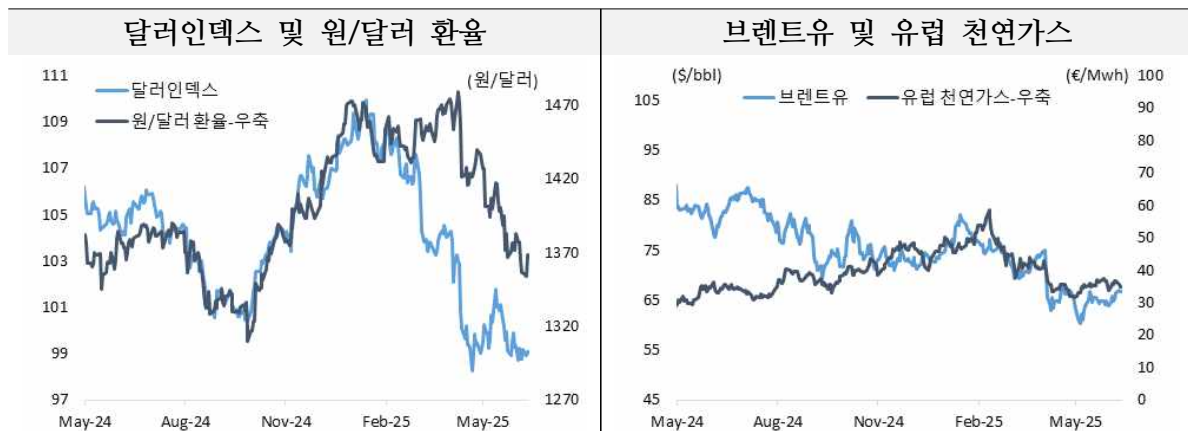
- 최근 주요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지만,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직접적 대응 불필요하다는 입장. ECB 라가르드 총재는 회사채 스프레드 하락 등을 거론하며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영란은행 부총재도 기업과 가계에 중요한 것은 단기금리라고 강조. 미국의 경우에도 시카고 연은에 따르면 최근 금융여건이 완화
- 장기 국채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재정적자 축소이며, 임시방편으로는 장기채 발행량 축소. 최근 영국이 장기채 발행량을 줄였고, 일본과 미국도 발행량 조정을 검토. 다만 현 상황에서는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

- **세계 경제, 트럼프에 의한 예측 불가능성 및 신뢰 훼손 등으로 위험 증가 - Financial Times**
(An ever riskier world economy)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국발 무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의 역풍에 직면하며 하향(세계은행: 2.7%→2.3%). 아울러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은 무역 및 투자 감소를 초래. 이 뿐 아니라 무역합의가 이루어져도 관련 신뢰도가 약하여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취약성을 증폭시켜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 초래할 소지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및 저소득 국가들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은 20년간의 충격(금융위기,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과 30년간 성장률 하향 추세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회복에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 한편, 세계적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신흥국은 자유 무역, 투자 유치,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경제적 안정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 아울러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무역 및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과 기후변화, 부채 해결 등 거시적 불균형 해소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미국 장기 국채수익률, 재정 악화의 척도로 인식되어 투자자 관심 증가 - 블룸버그**
(How the 'Long Bond' Showcases America's Budget Deterioration)
- **미국 트럼프 이민정책에 의한 고용지표 왜곡, 연준 정책 결정의 어려움 가중 - Reuters**
(Trump immigration crackdown creates jobs distortions, Fed headaches)
- **영국의 주요 자산, 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 요구 - Financial Times**
(Rising debt burden puts UK on a trajectory of more volatility)
- **미국 S&P500 기업의 목표 주가 상향, 증시 강세 지속 신호로 해석 - 블룸버그**
(Equity Analysts Are Over Liberation Day Tarif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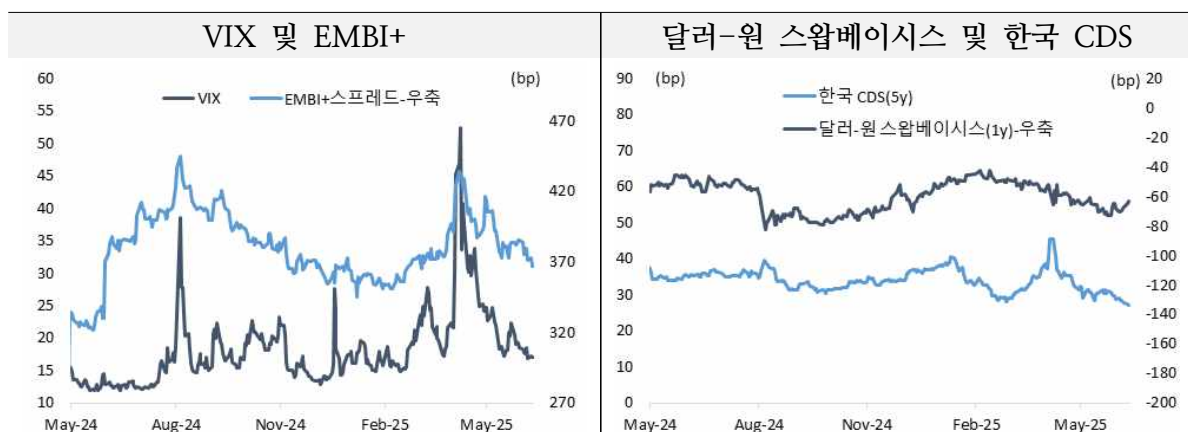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